

함평, 정신건강 증진사업 '우수기관' 선정

함평군 보건소가 군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함평군은 "전남도와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시군 간 정신 건강 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양질의 사업 발굴을 통한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 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 ▲정신

응급대응 등의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했다.

군은 올 한 해 ▲중증 정신장애인 관리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안심버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내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용희 기자

장성, 60세 이상 주민 치매 조기검진

경로당 등 찾아가는 방문 검진도 집중 추진

장성군이 60세 이상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진은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도 집중 실시 중이다.

인지선별검사를 통해 인지 저하가 의심되면 심층 검사를 시행한다. 양성병인 등 협약병원을 통해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 감별 검사도 받는다. 장성군은 감별 검사가 필요한

모든 군민에게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주민에게는 영양제 등 조호물품을 제공하고, 월 3만 원 이내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한다. 치매 증상 개선을 위한 인지 자극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완치 또는 중증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60세 이상 주민은 꼭 치매 조기검진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성=심재식 기자

장흥 '통일 기원 해맞이 행사' 개최

1월 1일 정남진 전망대서

장흥군은 오는 1월 1일 정남진 전망대에서 '통일기원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전 6시 30분 새해 일출 콘서트로 시작하는 해맞이 행사는 7시 39분 일출 시각까지 다채로운 무대로 채워진다.

장흥군은 올해 해맞이 행사를 정남진 장흥이 '통일 시작의 땅'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정남진 전망대를 통일기원 탐방로 새 단장하고, 통일기원 동산 조성하는 등 장흥을 '통일 시작의 땅'으로 각인한

다는 방침이다.

이날 통일기원 행사에 앞서서는 '2023년 문화·관광 트레킹상원년' 선포식도 펼쳐질 예정이다. 문화·관광산업을 장흥군 미래 발전의 핵심으로 선언하고 어머니 테마공원, 이정준 문학관 건립,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한다.

군은 해맞이 행사에 900여 명의 군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행사장에는 떡국 나눔과 소원지 달기, 가훈 써주기 등 부대행사가 마련돼 있다.

해맞이 행사 하루 전인 12월 31일 오후 3시에는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통일기원 학술 포럼이 열린다.

/장흥=임민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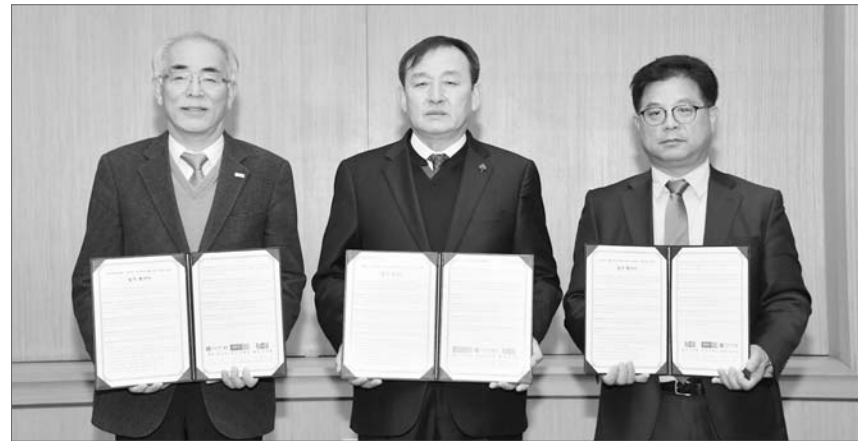
'담양형 딸기 AI 스마트팜' 개발 업무협약

군-광주과학기술원-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과 상호 협력

담양군은 지난 27일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과 '담양형 인공지능 스마트팜'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담양육성 신종 딸기의 시험재배 및 인공지능(AI) 선도기술 스마트팜 기술개발과 국내외 보급을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동연구 및 기술보급 협력 ▲담양육성 딸기의 해외 보급을 위한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정보 지원 ▲AI 스마트팜, 딸기 신종 및 재배기술 개발 분야 정부 지원사업 공동 참여 ▲빅데이터 기반 딸기



신종 품종 재배 매뉴얼 제작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지난 2010년 딸기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표시 등록(제70

회)을 완료했으며 자체 개발한 '죽향'과 '메리퀸' 품종은 당도·경도·과형·항모두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담양=조승채 기자

화순팜, 연말 감사 이벤트... 약 6100만원 매출 달성

3주간 판매액 지난 한 해 총 매출액 웃돌아... 로컬푸드 연계 주요

화순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3주간 진행된 연말 특별 행사에서 6100만여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쌀국수 ▲사골곰탕 ▲소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200여 개 농수특산물을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소비자의 눈길을 끌었다.

화순팜의 특별행사 기간 누적 판매

액은 6100만여 원이다. 지난해 화순팜 총 매출액인 5000만 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10만 원 이상 구매 회원에게 증정하기 위해 준비한 텀블러도 빠르게 소진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화순팜 활성화에 주효했다는 반응이다. 화순에서 생산되는 질 좋은 농수특산물의

저렴한 판매가 소비자의 큰 반응을 이끌어 낸 결과로 보인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 큰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를 통해 화순팜이 더 많이 알려졌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화순팜 시스템 개편 등 다양한 시도와 우리 군의 우수 농수특산물 특판행사를 계속해 믿고 찾을 수 있는 화순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주유현 기자

영광, 2024년도 국고건의·2023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총 92건 1조 1500억원 규모 현안사업 중점 추진

영광군은 지난 27일, 강종만 군수 주재로 부군수, 전 실과소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도 국고건의 및 2023년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총 92건에 1조 1500억 원(국비 7056억 원) 규모의 현안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국비 확보 방안을 중점 협의했다.

2024년도 국고 신규사업은 28건 2,886억 원(국비 433억 원) 규모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 브랜드 사업 750억 ▲영광 군립 미술관 조성 200억 ▲수요기반 조소형 전기차 공

용플랫폼 고도화 기술개발 290억, ▲영광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60억 ▲조산료 가공 종합 유통센터 건립 180억 ▲민물장어 전용 배합사료 공장 건립 100억 ▲미래농업자원 육성센터 설립 80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은 27건 5114억 원(국비 789억 원) 규모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5개지구) 761억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기술개발 및 성능 시험센터 구축 227억 ▲조소형전기차 사업 육성 서비스지원 실증 445억 ▲퍼스널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384억 ▲하수관로 정비

(영광·홍농병성) 482억 원 등이다.

2023년도에 중점 추진할 공모사업은 37건 3500억 원(국비 145억 원) 규모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예정 사업 80억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 173억 ▲e-모빌리티 글로벌 혁신 특구 980억 ▲일반농산어촌 개발 농촌협약사업 436억 ▲도시재생뉴딜사업 167억 ▲건강복지타운 조성 98억 원 등이다.

이에 군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는 등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해 국고확보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영광=정민기 기자

나주시사랑상품권 10%할인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나주시가 지역화폐 나주시사랑상품권 10%특별할인 제도 연장을 위해 내년 분예산에 74억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7일 나주시에 따르면 12월 기준 정책분 211억원을 포함, 나주시사랑상품권 총 판매액은 당초 목표한 1222억원을 넘어선 1277억원에 달한다.

이 중 1220억원(95%)은 환전이 완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나주시는 나주시사랑상품권 내년 판매 목표치를 일반판매분 820억원, 정책분 100억원 등 총 920억원으로 설정하고 할인율 5~10%를 유동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액면가 10%특별할인제도는 내년 2월까지로, 이후부터 5%할인율을 적용된다.

단 전통시장, 골목상권 최대 소비대목인 내년 추석 명절에 맞춰 9~10월에는 10%특별할인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국비 37억원, 도비 9억 원을 포함한 117억원 규모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했다.

당초 9월까지 예정됐던 10%특별할인을 민선8기 출범 후 올 연말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지류형' 나주시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액이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된다.

/나주=조성준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